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스포츠**  
골프 / 스포츠 / 레저 업종  
10% 할인

**GYM**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할인

**의료**  
병의원 / 약국 업종  
10% 할인

**생활**  
간편결제 / CU / GS25 / 스타벅스  
5% 할인

**학원**  
학원 업종  
5% 할인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 필수 안내사항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기계저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3-1493(심의일자 2023.08.17) 유효기간 2023.08.21 ~ 2024.07.31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C2b-09563호(2023.08.22 ~ 2024.08.21)

# 부산매거진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63**  
2024. 02

부산체육인  
부산환경공단  
안종일 이사장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강영서 선수

Sports is Busan  
-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부산기록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4. 02 Vol. 63



발행일 2024년 02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63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중욱,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도희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04



16



28

## CONTENTS

### B BUSAN HEROS

04  
부산체육인  
부산환경공단 안종일 이사장

08  
부산체육 꿈나무  
인지중학교 핸드볼부

12  
부산체육 발자취  
2014년 부산 체육계에는  
어떤 일이?

16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강영서 선수

### S SPORTS SERVICE

20  
스포츠 기고  
#BloodBattle:  
스포츠, 그리고 선한 영향력

24  
Sports is Busan  
-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8  
스포츠 파노라마  
미국 경제 성공의 비결  
“스포츠와 교육의 결합”

32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

### G GOOD LIFE

34  
스포츠 라이프  
부산클라이밍클럽

38  
스포츠 PLUS+  
빙판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빙상종목

42  
라이프 업그레이드 [삶]  
면역력 UP 시키는  
3분 림프 순환 체조

44  
라이프 업그레이드 [삶]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5년 프로젝트

### S FOR SPORTS CITY

46  
BSC 뉴스

50  
회원단체 소식

54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57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Clean&Green

부산체육인

저탄소 그린 도시를 선도하



Human & Green

## 건강하고 쾌적한 저탄소 그린도시 부산을 위하여!

부산환경공단 안종일 이사장



부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저탄소 그린도시'를 실현 중인 부산환경공단. 이곳에서는 전국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이 소속된 것은 물론 부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등 체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부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환경공단 안종일 이사장을 만나보았다.

### 먼저 부산환경공단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환경공단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환경전문공기업'입니다.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버리는 하수와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곳이죠. 부산 전역에 13곳의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매립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며, 분뇨와 음식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미세먼지 제거차량 운영을 통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집단 에너지 공급 등 환경에너지 분야 시설들도 전부 부산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그린도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환경기술 연구,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환경교육과 캠페인 등 환경 분야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 부산환경공단의 자랑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은 부산시 체육진흥과 지역 우수선수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2006년 1월 부산광역시 체육회로부터 남자팀을 인수해 운영, 이어 2008년 1월에

는 여자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세팍타크로팀은 2008년 전국체육대회 남자부 은메달, 여자부 동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2018년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남자부, 여자부 '동반우승'으로 국내 최강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지난해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여자선수단이 다시 한번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며 부산 세팍타크로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이 최강 전력을 자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우선 부산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겠지요.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감독님과 지역의 훌륭한 선수들이 계속 저희 공단에서 훈련하고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지도자, 운영진도 친밀하게 소통을 이어가며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시를 대표하는 세팍타크로 선수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과 경기에 임해준 선수단의 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공단에서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훈련 및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용 훈련장과 숙소, 훈련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팍타크로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매년 세팍타크로 종주국인 태국으로의 해외 전지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월 말에 해외 전지훈련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선수단 교육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스포츠 비리, 4대 폭력,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등 청렴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선수단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평소 어떤 스포츠를 즐기시나요?**

저는 부산시청에 있을 당시 탁구 동호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초대 회장이었죠. (웃음) 탁구는 움직임이 적어 보이지만, 아주 격렬한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상대의 실력과 움직임에 따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큰 쾌감을 느꼈습니다.

스포츠는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건강한 원천인 만큼 부산환경공단 직원들도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뭉쳐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해 서로 소통, 화합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환경공단은 '생활체육 천국도시' 구현을 위해 체육시설 무료 개방, 찾아가는 세팍타크로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인데요.**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등 환경공원과 체육시설은 시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어 연간 69만 명이 넘는 수많은 부산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환경공원과 체육시설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에 조성되어 있지만, 직접 방문해 시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환경기초시설이 깨끗하고 냄새 없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곤 합니다. 이처럼 공단은 시민,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시민분들에게 여가와 휴식, 힐링의 공간을 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생활체육도시 부산' 정책에 발맞춰 올해 공단은 환경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15분 도시',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건강한 체육과 여가 활동을 즐기실 수 있게 공단 공원 및 체육시설의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간편 예약시스템 운영,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처리장 인근 주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단 세팍타크로팀이 부산시교육청과 연계해 '찾아가는 세팍타크로 교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세팍타크로 선수들이 직접 참여해 비인기종목인 세팍타크로를 친근하게 소개하고 다양한 기술 시범을 보이는 등 학생들과 신나는 체육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세팍타크로가 부산을 대표하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시민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만드는 것이 공단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세팍타크로 저변 확대와 선수단의 실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세

팍타크로 종주국인 태국 스포츠팀과의 MOU 체결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여자팀의 경우 정상급 활약을 펼치고 있고, 남자팀의 경우 올해 새롭게 멤버를 구성해 멋진 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패기로 눈부신 활약을 펼칠길 응원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팍타크로는 그 어떤 종목보다 화려하고, 경기 진행이 빠르다 보니 박진감이 넘칩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세팍타크로 경기를 한번 보신다면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 것입니다. 공단 세팍타크로팀과 더불어 세팍타크로 종목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공단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응원도 당부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저탄소 그린도시를 선도하는 환경전문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365일 24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의 완벽한 수행은 기본, 탄소중립과 환경신기술 개발, 시민환경교육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한 실천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투지와 열정의 팀워크로 미래를 밝히는 인지중학교 핸드볼부

온몸으로 뛰며 순식간에 역전 기회를 만드는 빠른 플레이. 오로지 손으로만 이루는 스포츠인 핸드볼은 견고한 팀워크와 박진감이 넘치는 매력적인 스포츠이다. 핸드볼이라는 꿈을 향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인지중학교 핸드볼부를 만나보았다.



최우석 코치



## 점진적 성장으로 얻은 눈부신 성과

인지중학교 핸드볼부는 2008년 창단해 올해로 16년째가 되었다. 신곡중학교 핸드볼부가 해체된 이후 초등학교 핸드볼부 졸업생들이 진학할 곳이 없어지게 되면서 인지중학교 핸드볼부 창단이 있기까지 협회 및 여러 관계자의 고군분투가 있었다. 2021년 10월부터 인지중학교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는 최우석 코치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기량과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선수들을 위해 최대한 훈련에 집중한다.

학교 경기장은 정규 시험 규격보다 작기 때문에 경기 훈련은 사직에 있는 체육회관에서 진행한다. 늘 체육회관에서 연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연습을 위해 매년 일광에서부터 먼 길을 달려오는 선수도 있다. 체육회관을 함께 쓰는 낙동고등학교와 만덕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렇기에 체육회관에서 최대한 훈련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이러한 훈련의 성과는 2023년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나타났다. 10년 만에 4강에 진출하고, 주니어 국가대표 2명을 배출하는 등의 쾌거를 이룬 것이다.

“시험 전까지 한 달 정도의 훈련 기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방과 후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오후 운동,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다시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동을 했지요. 모든 선수가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훈련을 따랐습니다.”

최우석 코치는 선수 한 명 한 명 컨디션을 파악하는 동시에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선수의 역량과 플레이가 팀 전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기에 임할 때는 실시간으로 상대 선수들의 플레이를 분석하고,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선수들에게 즉각적인 전술 코칭을 전달했다. 매 경기가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4강 진출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 성과는 단순한 요행이 아니었다. 작년 3월에 있었던 전국 중고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한 차례 선수들의 성장이 있었다.





# HANDBALL

“중고선수권대회 첫 시합 대진표에서 만난 팀이 시합 2주 전에 연습 경기를 함께 했던 진주동중학교였습니다. 저희가 연습 시합 때 5골 이상으로 계속 패했던 경험 때문에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지 않을까 내심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마지막에 5초 남기고 골키퍼가 골을 막아내며 1골 차이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중고선수권대회에서 심리적 한계를 극복한 인지중학교 선수들은 시합이 끝났을 때 모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동행한 부모님들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경기 결과에 함께 울고 웃었다. 그동안 승리를 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한 연습경기를 치르며 쌓아온 팀워크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 부상을 넘어 단단한 팀워크로

핸드볼은 속도감과 더불어 팀워크가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다 해도 경기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인지중학교 선수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선수마다 팀을 위한 희생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상식 사진을 보면 한예령(당시 1학년)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 선수가 시합 일주일 전, 훈련을 하다가 코를 골절 당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수술해야 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팀 전술의 가장 큰 핵심이라 수술을

- 2008 인지중학교 핸드볼부 창단
- 2014 제11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여중부 우승
- 2022 핸드볼코리아 전국중고핸드볼선수권대회 3위



미루면서까지 경기에 임했습니다. 16강전을 치르고, 8강전을 치르고 나서 수술을 더 미룰 수 없게 되어서야 4강전 하루 전날,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 선수의 희생 덕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인 프로 선수들도 부상 앞에서 몸을 사리기 쉬운데, ‘핸드볼’ 하나만 보고 인지중학교에 진학하여 선수 생활을 이어오는 이들의 탄탄한 팀워크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 팀워크 가운데는 최우석 코치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평소 선수들과 경기에 관련한 대화뿐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으로 선수들이 운동하면서 삶의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함께한다.

### 부산에서 마음껏 운동하는 날을 꿈꾸며

6박 7일 무안에서 진행한 이번 겨울방학 전지훈련에서는 3학년 선수들이 빠진 저학년 선수들의 첫 훈련이었다. 정식 규격을 갖춘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체력 훈련과 기본기를 다졌다. 긴 훈련 기간 동안 선수들은 지루하거나 힘들 법한 과정도 묵묵히 견디었고, 한계가 왔을 때 한 발짝 더 뛰며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운동을 억지로 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지중학교 선수들은 정말 핸드볼을 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번 전지훈련에서뿐만 아니라 규격에 맞는 경기장에서 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핸드볼부가 생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수들을 보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선배들보다 더 나은 후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이 졸업 후 진학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때부터 쉽게 핸드볼을 시작할 수 없는 학생들도 많고요. 재능이 가득한 이 선수들이, 부산에서 걱정 없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부산의 청소년 핸드볼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인지중학교 핸드볼부. 앞으로 이들이 큰 날개를 펼치며 넓은 핸드볼 코트를 훨훨 나는 날을 꿈꿔 본다.

### Mini interview

질문 ① 나에게 핸드볼은? ② 핸드볼만의 매력?

배은빈 (3학년)



- ①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하게 합니다.
- ② 핸드볼은 좁은 코트에서 움직이는 빠른 스피드가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이혜연 (3학년)



- ① 저의 꿈입니다.
- ② 빠른 스피드와 몸싸움이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박시울 (3학년)



- ① 인생에서 제일 빠른 길입니다.
- ② 손만으로도 다양하고 색다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 2014년

## 부산 체육계에는 어떤 일이?

글\_원성만

‘부산 체육 50년사’는 1963년부터 2013년까지 50년에 걸친 부산 체육의 방대한 역사와 자료를 집대성한 책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부산 체육계는 물론 부산시, 언론계 등 각계가 마음과 힘을 합쳐서 부산 체육의 영광과 감동, 희망과 지난한 발자취를 정리하여 담았다.

이제 어느덧 ‘부산 체육 60년사’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포함해 미래까지 이어지는 변화의 과정이 오롯이 담긴다. 그러기에 역사 정리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부산 체육에 대한 원로 체육인의 기억과 증언이 사라지기 전에 귀한 사료를 기록하고, 조사·검토하며 체계적인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힘들고 방대한 작업이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체육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부산 체육 60년사’는 10년 주기의 부산 체육사 편찬 작업을 계승하여 부산 체육의 미래를 더욱 탄탄히 준비하는 밑거름을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다. 부산 체육 반세기의 역사는 곧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다. 그 영광된 현장의 발자취를 따라서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새로 기획했다.

### 전문 체육 분야

2014년은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렸던 해이다.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시 선수단은 총 47개 종목 1,566명(선수 1,199, 임원 367)이 참가하여 금 64, 은 74, 동 90개를 획득해 종합 6위의 성적(40,420점)을 거두었다.

이에 앞서 2014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주 개최지인 강원도를 비롯해 서울, 경기, 충남, 경북에서 부산 개최된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총 5개 종목에 205명(선수 156, 임원 49)이 참가하여 금 4, 은 6, 동 10개를 획득하여 종합 5위의 성적(490.5점)을 거두었다.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14년 5월 24일~27일)에서는 1,071명(선수 742, 임원 329)이 참가하여 금 22, 은 21, 동 22개를 획득하였다.

###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 성공 개최

2014년에 부산에는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었다.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은 국제 스포츠도시의 운영 능력과 위상을 한껏 다졌던 해였다.

2014 부산오픈챌린저테니스대회가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금정체육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열렸다. 부산 오픈챌린저테니스대회는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가 인정한 공식 국제대회이다. 총 30개국 100명의 우수 선수들이 참가했다. 국내 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과 경기력 향상, 테니스 인구 저변 확대, 테니스 꿈나무 육성 등 국내 테니스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 부산오픈챌린저테니스대회(사진제공 : 대한테니스협회)



2014년도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데이비스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그룹 예선 제2회전이 4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금정체육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열렸다. 한국과 인도가 맞붙었다.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는 '테니스의 월드컵'이라 불리며 3일간 생방송 중계했고 연인원 4,200여 명이 관람했다. '테니스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테니스 애호가들에게 수준 높은 국가 대항전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4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사진제공 : 부산광역시육상연맹)

5월 17일에는 용두산 공원 특설경기장에서 '2014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가 열렸다. 미국과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세계 장대높이뛰기 강국을 비롯한 14개 나라 선수 25명이 참가했다. 6회째였던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진민섭 선수가 5.65m를 도약, 자신이 지난해 세운 종전 한국기록(5.64m)을 1cm 경신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주말에 야외 특설경기장에서 개최해 용두산 공원을 찾은 부산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청소년 국제 스포츠 교류 활성화

청소년 국제 스포츠 교류도 활발했다. 한·일 우수 청소년 배드민턴 교류전(7월 2일~4일), 제4회 한·일 유소년 야구대회(8월 9일, 구덕운동장), 부산·후쿠오카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8월 20일~22일, 농구, 공수도, 럭비, 테니스, 정구 5개 종목, 후쿠오카 시 일원), 부산·후쿠오카 친선 교류 수영대회(12월 6일~8일, 후쿠오카 서시민실내수영장), 부산·호치민 유소년 축구교류대회(12월 23일~2015년 1월 10일, 호치민시 탄농스포츠센터) 등 5개 대회 9개 종목에서 청소년 국제 스포츠 교류 행사가 열렸다. 이러한 국제 교류 대회를 통해서 엘리트 꿈나무 선수들은 국제대회 경험과 기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우수 선수 발굴·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도시 간 우호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호치민 유소년 축구교류대회(2014.12.24.)(사진제공 : 부산아이파크)

###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 본격 시동

서병수 부산시장이 10월 6일 민선 6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면서 '2028 하계 올림픽 유치'를 미래 부산 전략의 하나로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부산시는 2005년 '2020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모두 아시아권으로 결정됨에 따라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 목표연도를 2028년으로 변경했다. 부산시는 동남권 지역 상생발전과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울산·경남 공동유치를 제안했지만, 실무 단계에서 3개 도시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 생활체육도 활성화되었다.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열린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시 선수단은 11개 종목에 28명(선수 24, 임원 4)이 참가하여 메달 30개(금 8, 은 10, 동 12)를 획득하였다.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1월 4일~8일)에는 24개 종목에 407명(선수 303, 임원·보호자 등 104)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메달 160개(금 65, 은 47, 동 48)를 획득하여 종합 7위를 차지했다.

2월 11일~14일까지 4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제1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렸다. 우리 시 선수단은 4개 종목에 50명(선수 22, 임원·보호자 등 28)이 참가하여 메달 5개(금 1, 은 2, 동 2)를 획득, 종합 7위를 차지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동시 개최됐다. 우리 시 선수단은 14개 종목에 152명의 선수단(선수 110, 임원·보호자 등 42)이 참가하여 메달 45개(금 11, 은 12, 동 22)를 획득하였다.

연제구국민체육센터와 동래구국민체육센터가 각각 2014년 2월과 7월에 개관하는 등 모두 11개 국민체육센터가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와 체육복지증진의 산실 역할을 하였으며, 2014년 7월에는 수영구민체육센터가 개관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사진제공 :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사진제공 :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 눈부신 설원 위, 빛나는 인생



##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강영서 선수

● ●  
걸음마를 떤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키를 신었다는 강영서 선수.  
그렇게 거의 평생을 스키와 함께한 그의 이야기와 스키의 매력에 대해 들어보았다.



# SKIS



[사진제공] 강영서 선수 본인

### 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前(전)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이자 현재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소속 선수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강영서입니다. 저는 생후 29개월에 처음 스키를 신었을 만큼 어려서부터 스키를 좋아했습니다. 현재는 17년째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회전 종목입니다.

### 2. 스키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스키 종목 중 알파인스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어난 순간부터 겨울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스키장으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부모님께서, 특히 아버지께서 스키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스키를 타러 갈 때마다 스키의 매력에 푹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고, 그러던 중 그냥 재미로 나가보았던 부산스키대회에서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08년 1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국대회에 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키선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골프, 스케이트, 태권도, 농구 등 여러 가지 스포츠를 접해보았지만, 어느 것도 대자연 속 설원을 마음껏 달리는 일만큼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그 설렘으로 지금까지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그럴 것 같고요.

### 3.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던 당시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국가대표 선발 이후 행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만 16세의 나이로 '2014 소치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당시 유망주로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올림픽 한 달 전 오른쪽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



히 올림픽에는 무사히 출전할 수 있었지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올림픽에 다녀와 수술한 후, 슬럼프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 덕분에 선수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아픈 기억이지만 많이 성장하는 기회였습니다. 이후로 조금씩 기량이 회복되어 '2017 삿포르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의 성적을 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를 준비하면서는 유럽에서 대회투어를 돌며 세계적인 무대에 계속해서 도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 한국 여자 선수 중 알파인스키 월드컵 대회전(Eiant Slaom) 종목에 최초 출전할 수 있었어요. 베이징 올림픽대회에서는 부상으로 좋은 결과를 내진 못했지만 이 대회를 계기로 개인 에세이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시간들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걸 배우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덕분에 스키를 타는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앞으로도 남은 선수 생활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작년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슈퍼대회전, 회전, 복합), 은메달 1개(대회전)를 획득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과 수상 소감이 궁금합니다.**

유럽 대회투어를 돌며 쌓은 경험 덕분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훈련비용, 계획 등을 발표 자료로 만들어 대한스키협회에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세계 무대로 계속해서 도전해 보고자 갖은 노력을 해보았던 게 스키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충분히 4관왕을 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기도 했어요. 두 번째 무릎 수술 이후 복귀하던 해에 출전했던 전국체육대회라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물론 대회 이후 더 이상 무릎을 혹사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국가대표로서는 은퇴 결정을 하게 되었지만요. 하하.

**5. 그동안 눈부신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얻기까지 힘든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한국은 아무래도 겨울이 짧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부상으로 슬럼프나 트라우마를 겪을 때 또는 이 외에 어려움은 제가 노력만 하면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스키협회에 직접 찾아가 지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한몫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이어져 온 부산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지원 덕분입니다. 부산과의 인연이 없었다면 저는 선수 생활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현재 소속팀의 윤설호 감독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감독님과 동료 지도자분들이 선수들 못지않게 고생하고 계세요. 지금도 부산의 후배 선수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뤄낸 성과의 영광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즐겁게 선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인생 경험의 발판을 마련해준 저의 고향 부산에, 그리고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윤설호 감독님과 동료 지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6. 알파인스키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스키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알파인스키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대자연의 절경 속에서 즐기는 스피드입니다. 하얀 설원을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매력이에요. 선수로서 느끼는 또 다른 매력은 기문입니다. 기문\* 사이를 타고 빠르게 내려갈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겨울이 짧아 어려움을 마주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스키를 좋아해서 선수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게는 스키를 타며 살아온 시간 자체가 행복이고 선물이었거든요.

\* 기문: 스키 경기에서 코스 설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깃발

**7.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 계획과 목표(인생 버킷리스트 등)는 무엇인가요?**

얼마 전까지 개인 에세이를 집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 번의 올림픽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수로서 보낸 9년의 시간을 정리한 책이 곧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글을 썼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삼 제가 얼마나 스키를 사랑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곧 다가올 전국동계체육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비록 국가대표로서는 은퇴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소속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 보려 합니다. 멈추면 돌아올 수 없는 스키선수로서의 삶을 최대한 오래 만끽하기 위해 조금 더 자유롭게 즐겁게 그리고 부지런히 노력할 것입니다.



**강영서 선수 약력**

2014(소치), 2018(평창),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했다. 2017 삿포르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했고, 2020-21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스키 월드컵 대회전 종목에 한국 여자 선수로서는 최초로 출전해 알파인스키 월드컵의 물꼬를 텄다. 같은 시즌 유럽 피스 대회 회전 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알파인스키 선수로 활약했다. 현재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 #BloodBattle:

### 스포츠, 그리고 선한 영향력

Big House(University of Michigan의  
풋볼 경기장)를 가득 메운,  
110,000명이 넘는 관중의 함성 소리.  
사기가 이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두 대학 간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선수도 관중도.



글\_ 권영범 교수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스포츠 경영 및 건강 관리 전공

**학력** 박사: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학/석사: 성균관대학교

#### 경력

2021. 9 ~ 현재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2013. 9 ~ 2021. 8

University of Michigan, The Center for Sport Marketing Research,  
연구원 (선임: 2020.1-2021.8) 프로젝트 매니저

2010. 9 ~ 2013. 4

University of Michigan, Health Management Research Center,  
데이터 분석가

2010. 2 ~ 2011. 2

University of Michigan, School of Kinesiology, 연구원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와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간 풋볼 전쟁의 역사는 두 대학의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서 유명하다. 두 대학들의 라이벌전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8년부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 되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의 풋볼 전쟁은 매해 계속되었다. 부산시의 서구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관중들이 한곳에 모여 만들어 내는 스포츠 경제적 효과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단편적 예시로 2023년 이들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 가격(a get-in price)은 경기 당일 기준 \$676였다. 한화 90만 원이 넘는 티켓 가격과 이들이 입고 사용하는 팀 라이센스 제품들 그리고 경기가 열리는 기간 동안의 숙박과 식사 등을 고려한다면 스포츠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우선 고려 대상이다. 하지만, 두 대학 간의 풋볼 경기는 각 대학교와 지역에 경제적 이득만을 창출하고 있을까?

#### 피의 전쟁



스포츠는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대학의 풋볼 경기에서는 스포츠의 전쟁 뿐만 아니라, 피의 전쟁 또한 계속된다. Blood Battle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직역하면서 개인에 따라서는 자칫 잔인한(?) 단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실제 의미를 알고 나면 따뜻한 이미지로 인식된다. 1982년부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시간 대학교와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는 이들 간의 라이벌 풋볼 경기가 있기 전 약 한 달 전부터 헌혈 운동(Blood drive)을 매해 펼친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헌혈의 양을 모집했는지를 경기 당일 경기장에서 발표한다.

1 Lev Akabas (2023). Ohio State vs. Michigan is college football's ticketing Super Bowl. <https://sports.yahoo.com/ohio-state-vs-michigan-college-140000767.html>





● ●  
Prosocial Behavior

풋볼 경기 전 “Be A Hero”(히어로 되기)라는 이벤트 이름을 붙인 Blood Battle은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와 협업하여 혈액 공급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혈액, 골수, 조직 및 장기 기부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다. 스포츠를 통해 관련 단체들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스포츠를 어떻게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영어권에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 ‘Prosocial behavior’이다. 사회의 반(反)하다는 의미인 anti-social이라는 단어와 대치하는 단어로 prosocial의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이 개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 또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sup>2</sup>. Brief와 Motowidlo교수는 그들의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예시에 포함되는 것들을 나열한다: “helping, sharing, donating, co-operating, and volunteering”<sup>3</sup>. 예를 들면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돕는 행동, 학교에서 친구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도 친사회적 행동이다. 두 대학 간의 Blood Battle 또한 자신의 혈액을 기부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친사회적 행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친사회적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 관련 연구들은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4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유전적(biological/genetic) 요인. 진화 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 관점에서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나아가서는 자손 생산 욕구가 강한 유전자를 가진 개인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 유전 가능성은 대략 30-50% 사이로 추정한다. 종단 가족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속성은 유전자에 의해 설명되어진다는 보고가 있다<sup>4</sup>.

둘째, 학습화 된 사회적 규범(learned social norms). 사회 규범은 집단이나 사회에서 행동을 지배하는 관습적인 규칙이다<sup>5</sup>.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가 해야 한다고 믿는 것(즉, 규범)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이러한 행동에 적응하며 부적합한 생각과 행동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sup>6</sup>. 다시 말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공동체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셋째, 사회적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사회적 교환 이론은 사람은 비용(예: 도움과 관련된 시간)보다 더 높은 보상(예: 미래에 상호 도움을 받는 것)을 기대할 때 친사회적 행동에 참여한다는 주장이다. 사람은 어떤 좋은 결과를 얻고자 자신의 시간, 비용, 노력 등을 투입한다<sup>8</sup>. Blood Battle을 예시로 든다면 헌혈 운동에 참여한 개인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를(예: 헌혈 후 주어지는 리미티드 상품,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는 만족감 등) 얻기 위해 자신의 피를 기부한 것이다.

넷째, 공감-이타적 이론(empathy-altruism hypothesis). 이 가설에 따르면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이 경험하는 사건이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공감을 경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낄 때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난다<sup>9</sup>.

심리학 및 사회학에서 주로 제안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 요인인 위의 4가지와 더불어 스포츠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동기 요인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포츠 팀(또는 선수)에 대한 감정적 일체성(emotional attachment)이다. ‘팀 일체성(team identification)’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스포츠 팀에 대한 개인적 몰입도 및 감정적 관여도가 높은 경우 그 조직의 번영을 위해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서는 본 저자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팀이 친사회적 행동을 할 경우 팀 일체성이 높은 스포츠 팬 그룹은 낮은 그룹과의 비교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도 보인다<sup>10</sup>.

이번 호에서는 ‘기부’라는 토픽으로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간은 왜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의 스포츠 환경에서 어떻게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2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3 Arthur P. Brief & Stephan J. Motowidlo (1986). Prosocial organizational behavior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710-725.  
4 Gregory, A. M., Light-Häusermann, J. H., Rijdsdijk, F., & Eley, T. C. (2009). Behavioral genetic analyses of prosocial behavior in adolescents. Developmental Science, 12(1), 165-174.  
5 Bicchieri, C., Muldoon, R. (2014). Social norms. In: Zalta, E.N.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4 ed. Edited by Zalta EN.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6 Richerson, P., Baldini, R., Bell, A. V., Demps, K., Frost, K., Hillis, V., ... & Zefferman, M. (2016). Cultural group selection plays an essential role in explaining human cooperation: A sketch of the evidenc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9, e30.  
7 Tomasello, M., & Vaish, A. (2013). Origins of human cooperation and mor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4, 231-255.  
8 Balliet, D., & Ferris, D. L. (2013). Ostracism and prosocial behavior: A social dilemma perspectiv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20(2), 298-308.  
9 Batson, C. D. (2017). The empathy altruism hypothesis what and so what? In E. M. Seppälä, S. Simon-Thomas, S. L. Brown, M. C. Worline, C. D. Cameron, & J. R. Doty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mpassion science (pp. 27-40).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0 Kwak, D. H., & Kwon, Y. (2016). Can an organization's philanthropic donations encourage consumers to give? The roles of gratitude and boundary conditions.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5(4), 348-358.





한국 탁구 조 추첨 완료, 16강 진출 전선 이상 무!

##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사진제공]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대한민국에 탁구 종목이 도입된 지 100주년. 세계 탁구인의 축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부산 개최를 앞둔 가운데, 지난 1월 16일(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스포츠경기장에서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별리그 조 추첨식이 개최되었다. 조 추첨은 지난해 11월 국제탁구연맹(ITTF)이 발표한 대회 참가 40개국을 대상으로 예선리그에서 맞싸울 그룹을 배정하기 위한 것이며, 2023년 12월 ITTF 팀 랭킹을 기준으로 그룹 배정과 추첨이 진행되었다. 랭킹 1위부터 8위까지의 국가(협회)가 순위대로 1~8조 톱시드에 자동 배치

되며, 이후 차순위 순서대로 네 나라씩 같은 포지션 그룹으로 묶어 스네이크 방식으로 추첨하여 지그재그 배치 방식을 따른다. 조별리그 각 조의 1위 8팀은 16강에 직행하게 되며, 각 조의 2, 3위 팀은 추첨으로 상대가 결정되는 본선 1회전에서 맞대결하고, 승리한 팀은 남은 16강 여덟 자리를 채우는 순서로 토너먼트가 진행된다. 조 추첨식은 박형준·유승민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페트라 쇠링 국제탁구연맹(ITTF) 회장과 장인화 부산광역시 체육회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부산탁구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한편 조 추첨 전에 진행된 'ISO 20121' 인증서 수여식도 눈길을 끌었다.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ITTF 주최 역대 모든 대회 최초로 해당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표준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번 조별리그 조 추첨 결과 한국 여자 대표팀은 푸에르토리코,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쿠바와 함께 5조로 편성되었으며, 남자



대표팀은 인도, 폴란드, 칠레, 뉴질랜드와 함께 3조로 편성되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며 맹활약을 펼쳤던 신유빈(대한항공), 전지희(미래에셋증권) 선수의 활약이 이번 대회에서도 기대되는 가운데, 오광현 여자 대표팀 감독은 "신유빈, 전지희는 물론이고 다른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어 애초 스웨덴, 싱가포르와 한 조가 돼도 상관없었다."라며 "조 추첨 결과가 매우 잘 나왔다. 시상대에 태극기가 휘날리도록 해보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번 대회를 위해 한국 탁구는 그동안의 기다림이 응축된 만큼 역대 최고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로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2024년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된다.

[사진제공] 월간탁구 안성호 기자





추운 겨울, 가슴을 뜨겁게 할 최고의 축제

#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오는 2월 22일, 국내 최고의 스포츠 축제 중 하나인 전국동계체육대회가 강원도에서 열린다. 우리나라가 내로라하는 동계 체육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발판이 된 전국동계체육대회. 그 역사와 함께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소식을 살펴보자.



## 동계 체육 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다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여 국민의 체력을 향상시키며 지방 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동계체육대회의 효시는 1923년 동아일보 평양지사 주최로 대동강에서 열린 대회이며, 공식 대회는 1925년 한강(흑석동 부근)에서 조선체육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전조선빙상경기대회'이다. 이후 대회는 해방경축종합경기대회 동계대회, 조선동계올림픽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가 1949년 제29회 전국체육대회동계대회(빙상, 피겨, 아이스하키), 전국체육대회동계스키대회(알파인, 크로스컨트리)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그리고 1957년에는 대한체육회 총회 의결에 따라 대회 횟수를 하계 대회와 통일(1957년 대회는 제37회이나 제38회로 개최)하였고, 1986년 제67회 대회부터 빙상대회와 스키대회를 개최하면서 종합채점제를 시행하였다.

2018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제99회 대회는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 및 학생 선수 진학 차원에서 종목별 대회로 변경(종합순위 및 최우수선수상, 개·폐회식 미운영)하여 치러졌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를 연기, 고등부 경기만 진행하였다가 2022년에 제103회 대회부터 정상 개최되고 있다.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오랜 역사만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 눈 돌릴 틈 없는 겨울 스포츠의 대향연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22일(목)부터 2월 25일(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개회식은 용평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며, 종목별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을 중심으로 서울, 경상북도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점프), 컬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스타트, 산악(아이스클라이밍), 루지(스타트) 총 8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경기종목별로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18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의 경기가 진행되며, 경기 결과에 따라 종합점수 1~3위 시도 선수단, 경기단체 질서상, 모범 선수단상, 개인 및 단체 1~3위, 최우수 선수상과 함께 신기록 수립 선수, 비기록 경기종목의 선수(단체) 중 특별한 경기력을 발휘한 사람(단체)에게 특별표창 등을 시상한다. 참고로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봅슬레이스켈레톤 종목은 1월 11일, 2월 1일에 사전경기로 진행되었다.

부산 선수단은 지난 제104회 대회에서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며 16년 연속 종합 5위 달성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부산 선수단의 이런 성과는 전용 연습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 뜻깊다. 이번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도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쳐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







### 미국 경제 성공의 비결

# 스포츠와 교육의 결합

미국의 영향력 있는 경제 매체 <Fortune>지에서 대학에서의 스포츠와 교육의 공고한 결합이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기사를 발표해 큰 화제가 되었다. 교육과 스포츠의 결합은 인재 양성과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 체육교육에 진심인 미국 학부모들

우리나라 일부 학부모들은 스포츠나 체육 수업이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에서 그 비중을 축소시키길 원한다. 고등학교 고학년만 올라가면 체육 수업은 자율학습으로 대체되는가 하면, 대학에 가서도 스포츠 활동은 크게 중시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열중하느라 스포츠를 즐길 시간도 별로 없는 것이다.

반면, 미국 아이들은 방과 후 체육활동을 하러 인근 스포츠센터나 학교로 간다. 봄엔 야구, 여름엔 각종 스포츠 캠프, 가을에는 축구, 겨울에는 농구, 아이스하키 등을 하며 보낸다. 다수의 미국 부모들은 자녀를 어릴 때부터 다양한 운동에 참여시킨다. 스포츠는 자녀에게 스포츠맨십을 키워주고 이와 더불어 육체적 발육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팀 스포츠를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 구성원의 역할 등 사회성을 키우며 게임을 통해 공정성, 자기 자리 지키기, 집중력, 협동심 등의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생활 습관이 배어 있는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선수로 뛰면서 학업을 병행한다. 대부분 미국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하나 이상의 스포츠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는 아이들의 인격 형성과 신체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스포츠 시장의 규모 자체를 크게 키우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2023년 8월 25일 美 <Fortune>紙 기사 『USA Water Polo CEO: ‘Blending sports with education is the secret to America’s economic success’』



◀ 하버드대학 미식축구팀과 전용 스타디움





###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 대학 스포츠의 인기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일반적으로 프로 클럽을 통해 기술을 연마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수준 높은 대학 스포츠가 엘리트 선수 양성에 상당히 한몫을 하며, 교육과 경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은 대학 스포츠 자체만으로 연간 2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 스포츠를 담당하는 NCAA(전미대학체육협회)의 농구와 풋볼은 다른 프로 스포츠의 인기를 능가한다. 특히 전미 대학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파이널 경기는 매년 월드시리즈, NBA 파이널 못지않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한다. 미국 대학 스포츠는 프로 스포츠에 인재를 공급하는 인력풀인 동시에 하나의 독립산업으로서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하버드 대학과 같은 최고 명문 대학이 40개의 대학 대표팀 스포츠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것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대학 스포츠는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것일까? 첫 번째로 미국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나라라는 점이다. 미국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나라인 동시에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면적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30여 개에 불과한 프로 스포츠팀이 모든 지역에 있을 수는 없다. 4대 프로종목 팀이 하나도 없는 주도 있다. 따라서 프로 스포츠팀이 없는 지역에서 대학 스포츠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의외성도 대학 스포츠의 인기에 기여한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고 전문적으로 활약하는 프로 스포츠와 달리 대학 스포츠는 변수가 많고 비슷한 실력인 팀이 많다. 이런 특성상 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경기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특히 68개 팀이 단판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리는 NCAA 디비전1 농구 토너먼트는 이런 의외성이 가장 두드러진다. 미국 국민들 사이에는 매년 64강 토너먼트 승리 팀을 맞추는 것이 하나의 오락거리로 자리 잡았을 정도이다.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여자수구팀이 NCAA대회에서 우승한 뒤 환호하는 모습



▲ 서던 메소디스트 머스탱과 휴스턴 코가스 대학 농구 팀의 치열한 경기 모습  
◀ 하버드대학 조정 팀의 훈련 모습



###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

그렇다면 대학 교육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운동선수는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율, 인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나중에 그들의 사업에서나 기타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엘리트 대학 스포츠는 학업 외 활동이 아니라 리더십과 팀워크를 가르치는 핵심이 되었으며, 스포츠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복잡한 게임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또한 스포츠는 인종차별을 막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스포츠는 인종이나 사회적 장벽에 관계없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헌신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도약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NBA나 야구 메이저리그 등에서 수많은 유색 인종들이 스타가 되어 막대한 부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미국 프로농구의 경우 원래 유태계 선수들 혹은 백인들의 스포츠였으나 현재는 선수들의 80%가량이 흑인 선수들이다. 이처럼 스포츠계에서는 빈부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순전히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서 인종차별이나 빈부격차 등의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스포츠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포츠

또 하나, 미국의 유명 글로벌 기업들에서 운동선수 출신의 CEO나 직원들이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세계 2위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CEO 비외른 굴덴도 어린 시절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했다. 그 외에도 나이키, 맥킨지, 오라클, 월마트 등의 미국 유명 기업에는 대학 때 스포츠 선수 활동을 했던 임원들이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한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CEO들은 추진력이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팀워크에 도움이 되며, 요즘 유행하는 말로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스포츠 또는 체육 수업을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더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운동을 통해 역경을 뛰어넘고, 전술과 전략을 배우며,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경험을 한 학생은 다른 공부를 할 때나, 미래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남들보다 앞서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외부에서 뭐라고 해도 미국은 여전히 연간 23조 달러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식 교육과 스포츠의 결합은 계속해서 미국 자본주의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으며, 캠퍼스와 기업에서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등대가 되고 있다.





#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다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

‘함께하는 사상구! 소통하는 체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스포츠 복지 실현을 함께하고 있는 사상구체육회.  
소통과 공감으로 똘똘 뭉쳐 체육 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보았다.



### 사상구체육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상구체육회는 25개 회원 종목 단체(309개 클럽 10,123명)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 및 임원을 비롯한 종목별 회장들이 역량 있는 지도자들과 힘을 합쳐, “함께하는 사상구! 소통하는 체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체육 동호인 및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사상구는 부산시민체육대회(현 부산시민체육대축전) 다수 우승을 포함해 여러 대회에서 큰 활약을 보이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부산시민체육대회에서 3연패(2016~2018)를 달성, 2021년에는 경기력상(종합우승)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탁구, 파크골프, 체조, 배구 등을 비롯한 전 종목이 합심한 결과입니다. 또한 씨름대회, 어르신체육대회, 여성체육대회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매년 종목별 구청장기대회와 회장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선수를 선발 관리하고 선수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민과 체육인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원동력이었습니다.



사상구는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삼락생태공원(489m<sup>2</sup>)에 13개 종목 58개의 각종 체육·휴양 시설이 있어 시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대회로는 2023년 11월 제1회 전국 사상 ECO 마라톤 대회에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부산 시민 걷기대회도 매년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사상구체육회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별히 삼락생태공원 중앙광장과 학장천에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아침마다 생활체조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진행 중입니다. 자체 예산(1,500천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상구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대포와 삼락생태공원에서 해양레포츠 활동과 청소년 스키 교실 등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체육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사상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문체육 발전을 위해 2001년부터 23년간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에 매년 1,400천 원의 육성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년체육대회에서 모라중학교 양궁 단체전과 엄궁중학교 조정에서 금메달 등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2024년부터 예산을 400만 원 증액하여 선수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요?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삼락생태공원의 야구장과 게이트볼장을 정비하고 파크골프장(36홀)도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ECO 마라톤 대회(11월 개최 예정)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여가활동의 장을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상구체육회는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등 창의적인 스포츠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체육 환경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생활체육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상을 향한 여정,

# 한계를 넘는 도전!



## 부산클라이밍클럽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능 중 하나다. 부산클라이밍클럽은 스포츠 클라이밍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딛고, 올라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 ‘부산클라이밍클럽’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부산클라이밍클럽은 클라이밍 교육·운동 및 등반을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2005년 연산동에서 시작해, 2014년에는 해운대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클라이밍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으며, 가령 시합을 나가고 싶거나, 자연 암벽 등반, 해외 등반 등을 하고 싶다면 다양한 외부 활동을 이어나가는 구조입니다. 주중에 자유롭게 모여 실내클라이밍을 즐기고, 월 1회 자연암벽등반과 기타 번개등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클라이밍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산을 등반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클라이밍은 야영하고 밥을 해 먹는 등 산에서 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이 매력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으로서의 매력은 처음에 아무리 클라이밍을 못하더라도 결국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더욱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클라이밍은 산 혹은 정상을 정복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 정확히 어떤 깨달음의 과정을 얻게 되나요?

가령 아이들이 홀드를 잡고 오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공포심, 두려움, 무서움 등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이때 ‘ 그냥 포기하고 내려갈까?’, ‘아니야 더 높이 올라가 볼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한 번 도전해 볼까?’ 등의 결정을 아이들 스스로 내린다는 거죠.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 속에서 본인이 선택한 결정을 완성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그 과정에서 클라이밍에 대한 깨달음, 나아가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박정웅 회장



### 부산클라이밍클럽에 대해 자랑한다면?

타 클럽이 청년 위주의 구성원인 것과 달리 부산클라이밍클럽은 초·중학생 그룹, 30대 이상의 장년층 그룹이 주를 이룹니다. 최근 TV나 뉴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해 많이 소개되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매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다 보니, 아이들이 클라이밍을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장년층은 기본적으로 다른 운동을 했던 분들이, 조금 더 재미있는 운동을 하고 싶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클럽은 유아부터 6, 70대가 와도 그 나이에 맞는 수준에 클라이밍을 제공한다는 점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4월 부산산악연맹 대원들이 히말라야 미등봉인 골둠피크(6,620m)를 세계 최초로 등반했는데, 여기에 부산클라이밍클럽 소속 산악인들이 포함되어 함께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도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 클라이밍은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즐기면 좋을까요?

클라이밍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날아다니는 동적인 운동이 아니라, 아주 정적인 운동입니다. 혼자서 꾸준히 목표를 향해 오르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체력적·정신적) 모습을 체감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클라이밍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인가요?

클라이밍은 혼자서 하기도 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바둑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령 초보자들에게는 홀드(올라가는 길 자체)를 지정해 준다면 A라는 사람은 1번에서 3번 홀드를 잡아라, B라는 사람은 1번에서 5번 홀드를 잡아라라고 문제를 내주는 거죠. 그럼, 마치 바둑알을 두는

것처럼, 클라이머들이 홀드를 하나씩 잡고 올라갑니다. 10년 이상 된 분들이라면 1번에서 10번 홀드를 잡도록 문제를 내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제를 풀고 있지만, 결국엔 완등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공통분모가 생기면서 함께 등반하는 묘미를 느낄 수 있죠. 코스 내에서 자기 실력에 맞는 루트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성취감도 맛볼 수 있습니다.

### 스포츠클라이밍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조언할 점이 있다면?

'등반 연습하는 코스를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하고, 느끼고, 내려와라! 근육의 힘은 인간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뼈와 인대 같은 부분은 의지 외의 영역이거든요. 운동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의욕이 넘치기 마련이라 부상이 따를 수 있다 보니, 항상 생각하면서 개인마다 맞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클라이밍을 해나가시기를 추천합니다.



#### 부산클라이밍센터

- 🏆 2012년 대통령기 등산대회 여자일반부 2위
- 🏆 2023년 아시아유스스포츠클라이밍대회 유스B 리드3등
- 🏆 2023년 네팔 골둠피크 세계 최초등정(6,620m)

클라이밍 DNA,  
딛고 서는 것부터 시작!



박정용 대장

클라이밍이라고 하면 영화에서처럼 한 팔로 매달리는 거창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밍의 시작은 조그마한 발 디딤에 그쳐 서 있는 것부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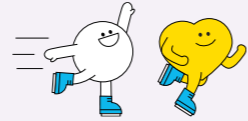
클라이밍을 시작하면 '무섭다'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은 과감하게 가는데, 나도 저렇게 해볼까?', '나는 못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올라갈 수 있지?' 등과 같은 끝없는 생각과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나만의 답과 또 다른 생각과 질문과 답을 풀어나가다 보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밍을 통해 신체적인 발달과 등반할 때만이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성취감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자연암벽 등) 벽에 서 있을 때의 느낌이 좋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클라이밍 DNA가 있다는 뜻입니다!





# 동계 스포츠의 무대, 빙판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빙상종목



실내 동계 스포츠의 주 무대인 빙판. 때론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감미로운 무대로, 때론 차가운 빙판을 뜨겁게 달구는 트랙으로 변신하는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빙상 종목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자료] 대한빙상경기연맹, 네이버 블로그 '위원석의 삼위일체'

빙판, 은반의 무대로!

## 피겨스케이팅



싱글 스케이팅(남·여)

쇼트프로그램, 프리스케이팅으로 구성

- \* 쇼트프로그램 점프 3개, 스핀 3개, 스텝 1개의 기술을 포함해 2분 40초(±10초) 동안 연기를 수행한다.
- \* 프리스케이팅 점프 7개, 스핀 3개, 스텝 1개, 코레오 시퀀스 1개의 기술을 포함해 4분(±10초) 동안 연기를 수행한다.

[사진제공] 대한체육회



페어 스케이팅

쇼트프로그램, 프리스케이팅으로 구성

- \* 트위스트 리프트(남자가 여자 파트너를 들어 올려 공중에서 3바퀴 돌게 하는 동작), 스로 점프(남자가 여자 파트너가 도약할 때 공중으로 던지면, 파트너의 도움 없이 착지) 등 아크로바틱한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아이스 댄스

리듬댄스, 프리댄스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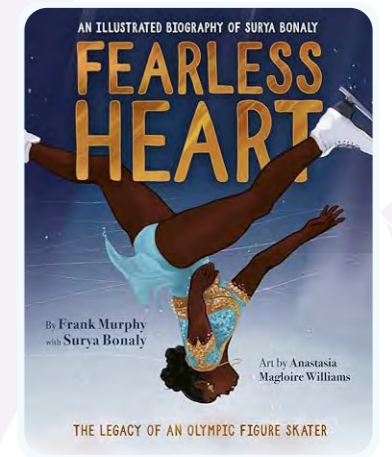
- \* 1회전 점프를 제외하고 피겨 종목 중 유일하게 점프를 하지 않는다.
- \* 파트너를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되고, 연기하는 동안 두 선수가 양팔 길이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 피겨 금지기술 '백플립'은 저항의 상징?

지난 1월 ISU 피겨스케이팅 유럽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아당 샤오잉파(프랑스) 선수가 피겨 금지기술인 '백플립'을 펼쳤다. 해당 기술 구사로 2점 감점을 받고도 우승을 한 샤오잉파는 대회 직후 인터뷰를 통해 "감점을 받는 걸 알았지만) 관중들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중에서 뒤로 한 바퀴 돌아 착지하는 '백플립'. ISU(국제빙상경기연맹)에서는 부상 우려로 해당 기술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술을 수행해 성공하더라도 감점 처리한다.

백플립은 일부 피겨인들에게 '저항의 상징'인 기술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아프리카계 프랑스 출신 여자 싱글 선수였던 슈리야 보날리는 1990년대 4회전 점프 등 압도적인 고난도 기술을 펼치고도 국제대회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했다. 보날리는 자신의 피부색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했다고 믿었다. 보날리는 1998년 나가노 올림픽대회 중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백플립을 펼친 뒤 은퇴했다. 당시 언론은 보날리의 백플립을 인종차별과 맞선 저항의 몸부림이라고 표현했다.





빙판, 뜨거운 트랙으로!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p>롱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Long Track Speed Skating</p>	<p>정식 명칭</p> <p>트랙 길이 (바퀴)</p> <p>순위 결정</p> <p>경기당 출전 선수</p>	<p>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Short Track Speed Skating</p>	<p>용구</p>
<p>400m (양쪽 직선주로는 100m 이상)</p>		<p>111.12m (양쪽 직선주로는 28.85m로 트랙의 절반 정도가 곡선주로)</p>	
<p>기록(속도) - (자신과의 싸움)</p>		<p>등수(순위) - (상대와의 싸움)</p>	
<p>일반적으로 2명의 선수가 출전</p>		<p>4명 이상의 선수가 출전(조별 토너먼트)</p>	
 <p>① 후드와 피부를 밀착해 공기 유입을 막아줌 ② 오른쪽 허벅지에 마찰 방지 소재로 이루어짐</p>	 <p>① 치열한 자리다툼이 많은 경기로 부상 발생이 높아 헬멧을 착용 ② 일명 개구리 장갑이라 불리는 쇼트트랙 장갑은 손가락 끝에 세라믹 캡이 붙어 있음(코너링할 때 마찰력을 최소화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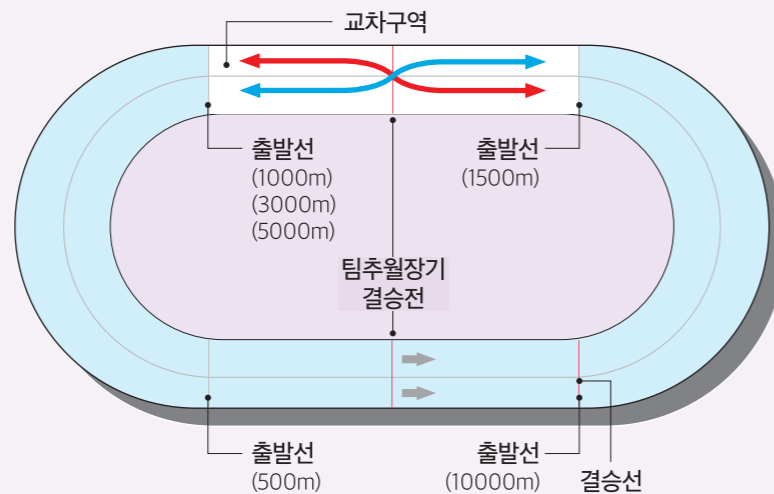
[사진제공] 대한체육회

스피드 스케이팅 교차구역에서 선수끼리 부딪친다면?

스피드 스케이팅은 일반적으로 2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인(IN)코스나 아웃(OUT)코스를 구분해서 트랙을 사용한다.

각 선수는 트랙 교차구역에서 위치를 바꾼다. (인코스에서 출발한 선수는 아웃코스, 아웃코스에서 출발한 선수는 인코스)

인-아웃 전환 시 'X'자로 추월하거나 교차점에서 두 선수가 충돌할 가능성이 발생할 때는 아웃코스 선수에게 우선권이 있고, 두 선수가 충돌할 경우 인코스 주자가 실격된다.



스케이터의 동반자, 스케이트



- 피겨스케이팅**

  - \* 앞부분에 톱니가 있음
  - \* 스케이트 날 가운데 오목한 홈이 있음
  - \* 발목 높이가 높음
  - \* 날 가장자리가 위로 솟아 있음
- 스피드 스케이팅**

  - \* 일명 '클랩(Clap) 스케이트'로 뒤쪽 날이 부츠에서 분리됨
  - \* 스케이트 날이 빙판에서 떨어지지 않다 보니 선수가 얼음을 지칠 때 끝까지 힘을 실을 수 있음
  - \* 날이 가장 얇고 긴 형태
  - \* 부츠 발목 높이가 복숭아뼈 아래에 올 정도로 낮음
- 쇼트트랙**

  - \* 코너링을 원활하게 하도록 스케이트 날이 선수 기준에서 왼쪽으로 휘어져 있으며,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음
  - \* 코너링할 때 발목이 다치지 않도록 발목을 덮는 형태

빙상의 핵심 '얼음', 어떻게 만들까?

선수의 순위와 기록을 좌우하는 것은 얼음의 질, 바로 '빙질'이다. 빙질은 고도, 온도, PH 등의 영향을 받고, 경기 종목별로도 빙질이 달라야 하는 만큼 얼음을 세심히 만들어야 한다. 이 얼음을 만드는 사람이 '아이스 테크니션(Ice technician)'이다.

최고의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음이 어는 물부터 달라야 한다.

- RO시스템으로 증류수와 가깝게 ▶
- 화학반응으로 약산성화(PH 5.6~60) 물

경기장의 얼음은 어떻게 만들까?

- 바닥에 깔린 냉각 배관에 영하 19°C의 냉매 순환 ▶
- 노즐을 이용해 물을 뿌려 0.2mm 얇은 빙면 생성 ▶
- 얼음 상태 확인 ▶
- 노즐을 이용해 물을 뿌려 0.2mm 얇은 빙면 생성(반복) ▶
- 5cm 얼음을 위해 약 250회 반복

종목별 최적의 빙질은?

- 쇼트트랙 : 두께 3cm, 영하 7°C
- 스피드 스케이팅 : 두께 3cm, 영하 4~5°C
- 피겨스케이팅 두께 5cm, 영하 3~4°C
-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부드러운 얼음, 낮을수록 단단한 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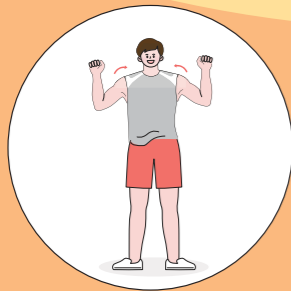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면역력 UP↑시키는 3분 림프 순환 체조



면역력 하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중요하다. 혈액은 심장이 뛰면 자연스럽게 온몸을 돌지만, 림프를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심장과 같은 역할의 장기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골격근과 횡격막을 활발히 움직이면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는 체조를 통해 면역력을 높여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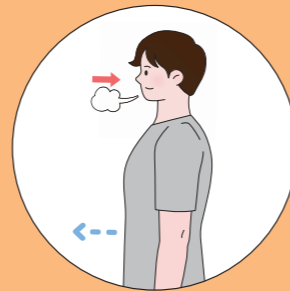
###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으로 림프 순환을 촉진

어깨관절이나 고관절과 같은 큰 관절,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많다. 어깨관절과 고관절을 크게 돌려준 후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를 가볍게 주먹으로 톡톡 쳐 주면 림프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 만세 점핑으로 효과적인 림프계 자극

골격근을 급격하게 활용하는 만세 점핑은 림프계 자극에 효과적인 동작으로 운동 효과로도 만점이다.



### 복식 호흡으로 횡격막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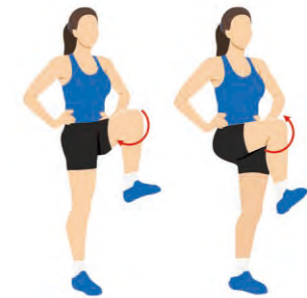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자극하는 호흡법이다. 복식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8초간 내뿜는 것'이다. 숨을 길게 천천히 내뿜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을 낮춰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다.

### ① 어깨 돌리기



먼저 왼쪽, 오른쪽 한 쪽씩 어깨를 2~3회 돌리고, 양쪽 어깨를 2~3회 돌린다.

### ② 고관절 돌리기



양쪽 고관절을 돌린다.

### ③ 겨드랑이 치기



가볍게 주먹을 왼 손으로 양쪽 겨드랑이를 톡톡 쳐 준다.

### ④ 사타구니 치기



가볍게 주먹을 왼 양손으로 사타구니 부위를 톡톡 쳐 준다.

### ⑤ 만세 점핑



온몸을 구부렸다가, 만세를 부르듯 양팔을 들어 올리며 힘차게 뛰어오른다. (무릎 관절염이 있을 시 주의 필요!)

### ⑥ 복식 호흡



양손을 배에 올려놓고 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며 4초간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쉴 때는 8초를 세며 배가 훌쩍해질 때까지 내뿜는다.



#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5년 프로젝트



저자 하우석 / 출판사 다운북스

「내 인생 5년 후」  
5년 후 오늘,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5 years after my life



5 year project

“성공하는 사람은 5년 단위로 인생을 계획한다!  
지금 당장 내 인생 최고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라.  
5년 후 내 모습을 바꿔줄 실행 노트 수록!”

《기획 천재가 된 홍대리》, 《100억짜리 기획력》, 《발표의 기술》, 《뜨거운 관심》 등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젊은 직장인들의 대표 멘토로 떠오른 저자가 2년여에 걸친 치열한 조사와 통찰 끝에 탄생한 이 책 《내 인생 5년 후》에서 그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남다른 인생 전략을 추적한다.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에서부터 CEO, 각 분야의 최고 리더, 창업 후 대박을 낸 식당 주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성공 이면에 숨어 있는 전략들을 낱알이 조명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마침내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언제나 한발 앞서가는 사람, 수립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사람, 인생의 모든 꿈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인생을 5년 단위로 계획하고, 그 5년 동안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5년 후 오늘,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5년 후 오늘,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왜 하필 5년일까?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한 티핑포인트를 만드는 데 최적의 시간이 바로 ‘5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낸 사람들이 갖고 있는 ‘5년 프로젝트’의 비밀을 흥미진진하게 펼쳐 보인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지금부터 5년’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판에는 5년 후 내 모습을 바꿔줄 실행노트가 수록되어 있다. 이 노트를 통해 저자는 진짜 나답게 사는, 나만의 진북(眞北)을 향해 가는 ‘진짜 내 인생’을 설계해 보라고 제안한다. 누구라도 이 책을 읽고 쓰는 과정에 동참한다면 일과 삶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풍성한 단초와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교실



온라인 접수  
<http://bslife.or.kr>



## 접수안내

모집기간: 매 짝수달 15일부터 ~ 말일까지(2개월 단위 접수)  
 모집대상: 성인 누구나 / 배드민턴(수영장) 경우 토요일은 초등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함  
 접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부산광역시체육회관 5층  
 문의처: 부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교실 담당자 ☎ 대표전화 (051)500-1336  
 \* 2021년도 일부 프로그램 개편(시간·장소) 및 수강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목별 입문자는 수강료가 무료입니다(선착순 5명).  
 - 기존과목에 등록 이력이 있는 분은 무료수강자 제외됨

## 프로그램

종목	모집인원	시간	수강료(월)	강습장소
탁구	각 타임별 35명	09:00 ~ 10:30 (입문자 무료 5명)	입문자 무료	수영장 3층 생활체육관 (월~금)
		09:00 ~ 10:30 (30명)	33,000원	
		10:30 ~ 12:00 (35명)	33,000원	
		12:00 ~ 13:30 (35명)	33,000원	
배드민턴 (수영장)	각 타임별 35명	19:00 ~ 21:00 (야간 35명)	40,000원	수영장 3층 생활체육관 (월~금)
		09:00 ~ 10:30 (35명)	33,000원	
		10:30 ~ 12:00 (35명)	33,000원	
		12:00 ~ 13:30 (35명)	33,000원	
배드민턴 (수영장)	각 타임별 25명	19:00 ~ 21:00 (야간 35명)	45,000원	수영장 3층 생활체육관 (토)
		09:00 ~ 10:30 (어린이 25명)	30,000원	
배드민턴 (실내)	각 타임별 40명	10:30 ~ 12:00 (어린이, 청소년 25명)	30,000원	실내체육관 보조B구장 (월~금)
		09:00 ~ 10:30 (40명)	33,000원	
		10:30 ~ 12:00 (입문자 무료 5명)	입문자 무료	
요가	각 타임별 30명	10:30 ~ 12:00 (35명)	33,000원	아시아드 주경기장 89호 (월·수·금)
		12:00 ~ 13:30 (40명)	33,000원	
		09:50 ~ 11:00 (30명)	25,000원	
국학기공	각 타임별 30명	11:00 ~ 12:10 (입문자 무료 5명)	입문자 무료	아시아드 주경기장 40호 (월·수·금)
		11:00 ~ 12:10 (25명)	25,000원	
		09:50 ~ 11:00 (30명)	25,000원	

\* 89호실: 아시아드 주경기장 55번 출입구 계단 밑 좌측 / \* 40호실: 아시아드 주경기장 58번 출입구 우측으로 4번째

## 할인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할인  
 주민등록상에 대하여만 65세 이상 30% 할인





### 제3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축구대회

직장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동호인들의 체력증진 도모는 물론 생활체육 천국도시 구현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 최대 규모의 직장인 체육 축제의 장, 제3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축구대회가 개최된다.

#### 🏆 대회개요

<b>기간</b>	2024년 3월 16일(토)~17일(일), 2일간	<b>참가대상</b>	부산관내 공공기관(유관 단체 포함) 및 경남·울산 기초단체
<b>개회식</b>	3월 16일(토) 09:00~10:00(천연A구장)	<b>참가팀</b>	기관별 1개 팀(팀별 20명) 총 32개 팀(선착순 모집)
<b>장소</b>	기장군 월드컵빌리지 축구장 전면(천연 2, 인조 2)	<b>주최/주관</b>	부산광역시체육회 / 부산광역시축구협회
<b>참가규모</b>	약 750명(선수 및 운영단) / 주요내빈 및 임원 제외	<b>경기방식</b>	토너먼트 방식

#### 📌 추진방향

축구 경기를 통하여 직장인들 간의 생활체육 소통의 장 마련

- 참가선수는 부산 관내 공공기관 및 경남·울산 기초단체 팀 소속으로 생활체육동호인에 한해 경기 참가(등록선수 출전 불가)
- 해당 종목의 경기 규정 적용하며, 종합 시상 시상 추진

부산 지역 직장체육 동호회 활성화 도모

- 축구대회 준비를 통한 직장인들 간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며, 부산 지역의 공공기관 등의 생활체육인 간의 교류 등을 통하여 생활체육 천국도시 구현



### 2024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대회

시민참여형 지역 리그대회 개최를 통한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민의 1인 1스포츠 생활체육 천국도시 조성을 위해 2024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대회가 3월부터 시작된다.

#### 🏆 대회개요

<b>기간</b>	2024년 3월~11월 ▶ 종합시상식 11월 개최 예정	<b>참가자격</b>	부산광역시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
<b>장소</b>	부산광역시 전역(종목별 경기장)	<b>개최종목</b>	5~7개 종목
<b>대회 기본원칙</b>	지역 클럽팀 구·군리그 예선전을 통한 본선 토너먼트 진행		

#### 📌 대회 목적

- 종목별 클럽팀을 대상으로 예선리그전 및 본선 토너먼트 경쟁을 통해 최강 동호인을 선발, 우수클럽 발굴과 부산체육 저변 확대 도모
-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 시민참여형 지역 리그 대회 개최를 통한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환경 조성, 부산시민의 1인 1스포츠 생활체육 천국도시 조성 기여



# 구군체육회 소식



## 중구체육회 2024년 제11차 부산광역시중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중구체육회는 1월 26일(금), '2024년 제1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복리후생비 규정 개정(안),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기타 토의 시간을 활용하여 중구체육회의 발전 등에 대해 소통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부산진구체육회 2024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산진구체육회는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2024년도 생활체육교실'로 첫발을 내딛었다. 운영 종목은 탁구, 배드민턴 같은 구기종목과 근력 강화를 위한 바디펌프, 필라테스 외 5종목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운동을 처음 접하거나 기초단계부터 운동을 배우고 싶은 구민들을 위해 맨몸트레이닝 수업이 신설되기도 했다.



## 동래구체육회 2024년 상설프로그램 운영

동래구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24년 상설프로그램'을 야외 라인댄스, 클라이밍, 배드민턴, 근력운동 총 4개 종목 7개 프로그램을 모집 중이다. 다양한 시간대에 많은 동래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2024년 갑진년에는 '구민건강! 구민행복! 구민화합!'에 걸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동구체육회 2024 동구민 해맞이 한마당

2024년 1월 1일(월) 수정산가족체육공원에서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2024 동구민 해맞이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동구체육회 회장 및 임원, 각 종목단체 협회회장, 동호인 및 구민 약 500명이 모인 가운데 추운 날씨에도 많은 동구 주민들이 한자리 모여 떡과 어묵탕을 함께 먹으며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각자의 소원을 빌며, 덕담이 오가는 따뜻하고 힘찬 2024년도를 맞이 하였다.



## 영도구체육회 2024년 갑진년 시무식

1월 2일(화)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2024년 갑진년 시무식'을 개최하며 힘찬 새해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시무식에는 영도구체육회장, 사무국장,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함께 진행된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김기재 영도구청장이 부산시장 단체상을 수상한 영도구체육회에 표창장을 전달하며 올 한 해도 체육회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영도구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북구체육회 화명생태공원 인조 잔디 조성기념 축구대회

북구체육회는 1월 28일(일) '화명생태공원 인조 잔디 조성기념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화명생태공원 화명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하였으며, 북구 관내 축구 동호회 1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뽐내고 단합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인조 잔디 조성으로 인해 축구 동호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구군체육회 소식



**사하구체육회**  
2023년 청소년 스키캠프

사하구체육회는 1월 5일(금) '2023년 청소년 스키캠프' 프로그램을 양산 에덴밸리에서 진행했다. 사하구 관내 거주 청소년 20명 대상으로 안전교육, 스키 장비 명칭 설명, 스키 신고 벗기, 넘어지기 및 일어나기, 자세 잡기, 멈추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스키캠프를 통해 겨울 스포츠를 접해 보고 안전하게 스키 기술을 배우고 활동해 봄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체력과 균형 발달에 도움이 되었으며 자연과 교감하며 활기찬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



**금정구체육회**  
제12회 금호타이어배 및 금정구야구협회장배대회

금정구야구협회는 1월 7일(일) 금정구민운동장에서 '제12회 금호타이어배 및 금정구야구협회장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2024년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개최된 협회장배대회인 만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현장 속에서 약 3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는 20개 클럽이 참여했으며 1월 7일(일)부터 2월 25일(일)까지 매주 일요일 하루 4경기씩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수영구체육회**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시무식 및 새해 다짐

수영구체육회는 1월 2일(화) 2024년 시무식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황대성 수영구체육회장은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체육회로 발전하고 활력 넘치는 체육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은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감동과 건강, 행복을 땀으로 채워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결의하는 등 새해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사상구체육회**  
2023년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스키강습)

사상구체육회는 1월 3일(수) 스키를 배우고자 하는 사상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스키 전문강사들과 함께하는 '2023년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스키강습)'을 진행했다. 이날 스키강습에 참여한 70여 명 모두 안전 수칙을 잘 지켜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었고 스키강습을 통해 평소에 접하기 힘든 스키라는 종목을 배우며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얻는 시간을 가지며 즐거움 속에 마무리되었다.



**강서구체육회**  
2024년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위원 신년인사회

강서구체육회는 1월 18일(목) 부산광역시 강서구체육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스포츠 공정위원 30명이 참석하여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 추진사업, 예·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등 새해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활동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연제구체육회**  
2024년도 연제구체육회 갑진년 시무식 및 간담회

연제구체육회는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여 1월 2일(화) 연제구체육회 회장 및 사무국장, 6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금정구에 위치한 땅피산 맨발 황톳길을 걸으며 '2024년도 연제구체육회 갑진년 시무식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024년도 갑진년에 연제구체육회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고 연제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장군체육회**  
2024 기장군 겨울 가족 스키교실

기장군체육회는 1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기장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스키교실을 무주스키장 일원에서 진행하였다. 29일은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여 스키 강습을, 30일은 리프트를 타고 자유스키를 탄 교실이 개최되었다. 불편한 부츠를 신고 무거운 플레이트를 들고 다니기 힘들었지만, 가족, 친구와 함께 스포츠를 스키를 즐기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부산국민체육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성료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국민체육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76명의 학생들의 참여 속에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수영, 배드민턴, 농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이번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추운 날씨 속에도 부산국민체육센터를 찾아 건강한 방학을 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이를 따라온 학부모 또한 부지런한 아이의 모습에 흐뭇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학생들이 체력과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방학 특강 프로그램 종강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1월 2일(화)부터 22일(월)까지 관내 초등학교생에게 방학 기간에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더불어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성과 책임감을 기르면서 즐겁게 방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그룹으로 진행된 방학 특강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수영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게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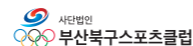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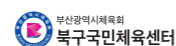


## 북구국민체육센터

다자녀 할인 대상자 기준 3자녀 → 2자녀로 변경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운영 조례 변경에 따라 다자녀 할인 감면 대상이 2023년 12월 20일부터 변경됐다. 북구에 거주하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은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 체육 시설 이용 편의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자녀 할인 대상자 변경 안내			
북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변경에 따라 다자녀 할인 감면 대상이 2023년 12월 20일부터 변경됩니다.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제출서류
다자녀 가정	북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 (타 구 적용 불가)	북구에 거주하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타 구 적용 불가)	·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앱(B-PASS 앱) · 신분증 · 등본(한 달 이내) ※ 신분증, 등본 원본 지참 필수 → 자녀의 경우 부모신분증 ※ 할인 해당 회원 직접 방문 필수
<p>헬스&amp;자유수영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 강습 프로그램은 2024년 1월 부터 중빙서류 제출 시 할인 적용됩니다.</p> <p>ex) 1월 프로그램 1/31까지 서류제출 → 할인 O 2/1이후 서류제출 → 할인 X</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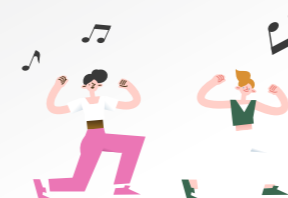


## 영도국민체육센터

2024년 새해맞이 신규프로그램 '라인댄스' 개강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2024년 1월 새롭게 개강하였다.

라인댄스는 격렬한 댄스와는 반대로 일반인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빠르기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든 따라 할 수 있으며, 근력도 키우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 부산실내빙상장

오는 2월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진행되는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부산빙상대표 선수들이 향토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새해 첫날 이른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부산실내빙상장에서 강화훈련에 임하고 있다.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빙상대표 선수단 강화훈련



2024 International Junior Hockey League 개최

1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4일간 전국 10개 시도 및 일본·태국·중국 등 총 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2024 International Junior Hockey League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경기를 모두 마무리한 뒤에는 선수들 간 우정을 다지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1월 13일(토) 제1회 나코차-바볼랏 전국 개나리부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개나리부 동호인 180여 명이 출전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이날 출전한 선수들의 대부분이 첫 대회출전이었기에 다른 대회보다 더욱 열띤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제1회 나코차-바볼랏 전국 개나리부 테니스대회 개최



### 제1회 나코차-바볼랏 전국 신인부 테니스대회 개최

1월 21일(일) 제1회 나코차-바볼랏 전국 신인부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신인부 동호인 180여 명이 출전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2023년 12월부터 3개 대회 째 열린 나코차-바볼랏 대회 덕에 부산 테니스 동호인의 대회 참여기회가 많아졌으며, 앞으로 테니스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부산광역시낙시협회

부산광역시낙시협회,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기부



부산광역시낙시협회(회장 김선관)는 1월 26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2020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로 5년째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호우 피해 이재민 돕기,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혹서기 취약계층 돕기, 희망나눔 캠페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늘 함께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6,000만 원이다.

김선관 회장은 “2024년에는 전쟁, 불황 등 어두운 소식이 아닌 평화, 상생, 행복과 같은 좋은 이야기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 소감을 밝혔다.

##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헬스 프로그램 신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오는 3월 헬스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보디빌더 출신의 지도자가 그룹PT를 진행하며, 체계적인 서킷트레이닝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시설 헬스장 PT보다 저렴한 금액이며, 체형관리, 체중관리, 식단관리 등 건강증진 및 체력증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위치) 사직역도훈련장 2층(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5-6) 문의) 051-710-7336

종목	프로그램	요일	시간	정원	요금(1개월)
헬스	그룹레슨 (Group Personal Training)	월·수·금	10:00~11:00	10	120,000원
		화·목	10:00~11:00		80,000원
		월·수·금	11:00~12:00		120,000원
		화·목	11:00~12:00		80,000원

##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

2024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성황리 종료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은 지난 1월 2일(화)부터 26일(금)까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력을 향상하고 학업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28 LA 올림픽대회 정식종목 채택이 유력한 스쿼시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야외활동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운동 부족을 해소하고 신체 활동 증진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NOW  
GO BACK** 이제 당신의 스포츠로 돌아가십시오  
**YOUR SPORTS**

- ▶ 프로구단 출신 전문 재활팀
- ▶ 최첨단 시설
- ▶ 맞춤형 재활계획
- ▶ 포괄적 접근방식
- ▶ 입증된 성공사례

**스포츠 재활을 통한  
경기력 향상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자세한 내용은 이곳으로



472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54  
동의과학대학교 스포츠재활센터  
TEL. 051)860.3255-6  
<https://sportpt.dit.ac.kr>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

바로 그곳에 (주)일동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변치 않는 가치와 자부심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건설리더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일동**

 **일동토건(주)**

 **미라주건설(주)**

 **태하건설(주)**



시만공원 일동미라주 시티



부산항 일동미라주 더오션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



신장유 일동미라주



부산 연산동 일동미라주



진주 강남동 일동미라주



김해 관동동 일동미라주 더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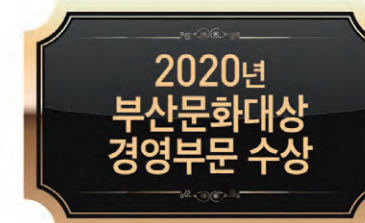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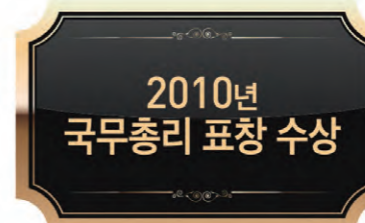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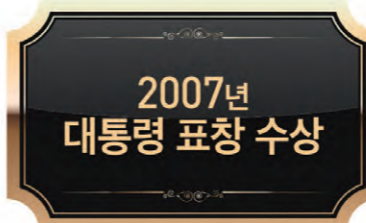
부산 영도 일동미라주



울산온양 일동미라주



울산 매곡중산자구 U-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







# 안녕하세요. 1등 테크 기업, 화승입니다

화승은 압도적 탄성체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 기업으로 앞서갑니다.  
초격차의 기술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갑니다.

No.1 Tech Company  
**HWASEUNG**

**HWASEUNG** 화승은 인화(人和)의 경영이념 아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수익성 최우선, 사회적 가치 실현, 고유한 기업자산 구축의 핵심가치를 통해 100년 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

부산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선수들의  
포를 향한 도전!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 체력측정 및 분석

- 기초체력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측정
- 전문체력  
운동부하검사(호흡가스 분석)  
젯산분석, 등속성 근관절 기능  
무산소성 운동능력 평가

## ○ 생체역학측정 및 분석

- 영상분석(자세분석/전술 및 기술 특성) 및 족저압분석
- 근전도를 통한 근육동원 패턴 분석

## ○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선수 데이터관리 시스템 운영
- 체력수준 진단 및 개인별 운동처방 제공
-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 ○ 스포츠과학교실

- 스포츠과학 이론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적용 교육
- 스포츠윤리, 도핑, 부상예방 및 진료 교육
- 스포츠 영양 교육

## ○ 스포츠심리지원

- 심리프로파일 분석, 심리훈련 및 상담

## ○ 찾아가는 현장밀착지원

- 체력강화 및 운동기술 전문가 현장지원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 훈련영상 촬영 및 종목별 필드테스트 제공

## ○ 스포츠헬스케어센터 운영

- 부상예방·회복 및 경기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전문 트레이너와 1:1 훈련 진행



# NO 페이퍼 ON 스마트

“종이는 줄이고, 생활은 스마트하게”

도시가스 고지서, 카톡으로 간편하게!  
지구를 살리는 스마트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 지구를 살리는 특특한 생활

kakao TALK 한번만 가입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부산도시가스 검색**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특 가입하기**

비대면으로 편리한 셀프서비스  
**조회/납부/이사방문신청**

QR코드로 사용하기

☑️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QR코드 스캐너로 비춰주세요

☑️ 가입/관리 클릭



이사 후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셀프로 스마트하게!!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기본을 지키는 바른 금융  
디지털로 열어나가는 새로운 금융  
모두의 내일을 키워가는 함께하는 금융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부산은행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